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3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62호

미국의 대북핵전쟁도발광증을 규탄

1일,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발표

지금 반테러의 구실하에 감행되는 미국의 대북핵전쟁도발광증은 날이 갈수록 내외의 거세찬 항의와 배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땅의 각계층 민중은 이북을 핵선제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우리 민족멸살을 겨냥한 가공할 핵전쟁계획으로 낙인하고 결사반대배격해 나서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도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냉전시대의 산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기를 갈망하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유린행위로 단죄규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내에서까지 ≪핵악당≫으로써의 미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철없는 어린애가 내는 짜증으로 야유하면서 핵참화속에서의 미국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할 무모하고 어리석은 핵공격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다.

이에 당혹해하는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느니 보고서는 그 무슨 하나의 이론적인 가설이라느니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며 구구한 변명을 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요설은 핵무기선제공격전략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미호전광들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가설이 아니라 21세기를 핵전쟁의 세기로 만들려는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핵무기사용정책을 드러낸 전쟁도발계획이다.

오늘 미국의 핵전략은 보복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에로 급전환되고 핵공격대상은 적전핵보유국에서 비핵국가에로 확대되었으며 핵무기사용기준은 최후의 전략수단으로부터 전시만이 아닌 평화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이같은 핵무기는 전쟁억제력이 아니라 전쟁추동력으로, 견제무기가 아니라 선제공격무기로, 전면전쟁용만이 아니라 국부전쟁용으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우리 민중의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범죄적인 첫번째 핵전쟁조준점이 한반도라는데 있다. 미국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땅에서 사상최대규모의 통합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부시의 서울행각은 대북핵선제공격계획의 최종점검이였으며 이번 대규모 한미통합군사훈련은 그 계획 실행을 위한 실동연습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전쟁내각의 우두머리들이 이북의 있지도 않은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여론화하면서 동해상에서의 이북선박나포와 격침문제까지 떠들어대고 있는 사실이다.

제반 사실은 ≪핵태세 검토보고서≫가 명백한 핵전쟁계획이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대북핵전쟁발발은 시간문제로써 이제 전쟁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우리 민족을 전멸시키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대범죄행위로 세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반인륜적 행위로 낙인하고 전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반대, 규탄한다.

핵재난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으로 우리 민족앞에 시시각각 다가서고 있다. 이북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이남에 대한 핵공격이며 한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은 곧 우리 민족의 전멸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의 긴박한 시국은 각계 민중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미국의 대북핵전쟁기도를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일치단결하여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한국 호전분자들의 반민족적인 대미전쟁공조를 저지파탄시키며 민족공조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 날을 앞당겨와야 한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핵공격기도를 당장 철회해야하며 이 땅에서 핵전쟁의 온상인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들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전국민과 함께 미국의 악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반미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나갈 것이며 미제가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이북 형제들과 어깨 겯고 ≪악의 제국≫ 미국을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 것이다.

백두산을 우러른다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 글 발표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 박광기가 ≪백두산을 우러른다≫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발표하였다.

글에서 박광기는 백두산은 태양의 성산, 혁명의 성산, 통일의 성산이며 백두태양은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밝혀 주고 온 겨레를 통일된 강성 대국 창조에로 이끌어 주는 민족의 태양이라고 썼다. 글은 오늘 백두산에는 3대천출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숙**녀사, **김정일**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새겨 져 있다고 하면서 이 산은 그분들의 불멸의 업적을 안고 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명산으로, 지구우에 우뚝 솟아 빛을 뿌리고 있다고 썼다.

글은 백두산이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변혁과 승리의 상징, 민족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것은 이 산이 민족재생의 발원지, 민족자주위업의 발생지, 그 완성의 사령탑으로 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글은 특히 백두산이 낳은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의 사상과 정신으로 시대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시고 백두의 의지와 담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썼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에 고향을 둔 백두산의 아들이시기에 사상과 성격, 취미도 신통히도 백두산을 닮으셨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백두의 혁명정신, 총대정신을 구현한 선군정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더불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가며 인류의 자주위업완성의 그날까지 필승의 보검으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글은 백두산이 우리 민족통일운동의 새 력사가 창조되는 통일의 성산으로 되고 있는데 대하여 썼다. 백두산의 넋을 지니고 백두산장군의 뜻을 따를 때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이룩된다는것이 바로 우리 이남민중의 신념이며 의지이라고 글은 지적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향도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글은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억센 신념의 기둥으로 안고 사는 이남민중의 고결한 신념과 의지는 21세기에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일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6)

4 세기와더불어
• 5장 3절 무장에는 무장으로(2)

6 칭송
•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꽃 속의 4월
•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빛내어 나갈 수 있다

7 구국의 소리
•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 몰아내자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1일
•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중지해야한다
• 계속되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

9 조선중앙방송
•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1)

11 평양방송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신 사상이론의 영재이시다

12 아리랑뉴스
• 발전노조, 노정합의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
• 민주노동당, 이인제씨 고발 경고
•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11일 출범
• ≪아리랑≫창작 완성단계
• 남북 민간 실무접촉, 오는 10일 금강산서 개최
• 경희대 지리학과, 4일 금강산 출항
• 주한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하)
• 임특사 일행 내일 방북

15 운동강좌
• 일국일당제 (2)

16 조국통일3대헌장
•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4)

주체사상에 대하여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1)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③ 경제에서 자립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 줄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계의 반제자주역량과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의 지배와 약탈로 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지정책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배와 착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며 민족적 불평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건설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는 인민은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지만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 인민은 아무 일도 잘 할 수 없습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인민의 힘과 자기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융성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자립경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나라와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립경제는 응당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여야 또한 경제를 공고한 토대위에서 안전하게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실천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를 건설하자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둥입니다. 이러한 중공업을 가져야 경제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경공업과 농업을 포함한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중공업 자체의 발전도 다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잘하여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기술적 자립은 경제적 자립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자체의 발전된 기술이 있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으며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발전시켜야 근로대중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갈 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경제의 기술적 낙후성을 청산하고 그것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는 것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모든 부문에서 온갖 가능성을 동원하여 기술혁명을 끊임없이 다그쳐 나가야만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기술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민족기술인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기술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민족기술인재문제를 해결하여야 자체의 힘으로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예속밑에서 현대과학기술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민족기술간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사회건설에서 특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을 하고 경제기술적으로 자립하자면 반드시 문화혁명에 힘을 넣어 근로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민족기술인재의 대부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를 인텔리화할 데 대한 방침을 견결히 관철해 나가야 하며 근로대중의 문화기술수준과 기술간부들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기술인재를 더 많이, 더 좋게 키워 내야 합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원료와 연료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경제를 안전하고 전망성있게 발전시키자면 반드시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에 의거하여야 하며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공업을 처음부터 자기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공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 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지키며 소수 자본주의열강들이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과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약탈하던 낡은 경제질서를 끝장내고 공정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무진장한 인적 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과 인민들이 경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입니다.

기술적 협조를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힘있게 벌인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정책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경제적 자립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노선입니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 및 경영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④ 국방에서 자위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입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고수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은 길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맞서고 반동들의 반혁명적 폭력에 혁명적 폭력으로 맞서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언제나 준비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의 군사적 담보입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할 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 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방에서도 형제나라들과 벗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나라를 보위해 줄 것을 남에게 의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이며 자체의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외부의 원조도 은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방위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자기인민의 힘과 자체의 방위력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국방사업도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자신의 사업입니다. 혁명적 당의 영도 밑에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자들도 능히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위적 무장력은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병사나 지휘관이나 할 것 없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된 군대만이 군민일치와 상하일치를 보장할 수 있으며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자위적인 무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자면 전군을 간부화하고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전군을 간부화하여야 군대의 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 필요한 지휘역량을 보장하여 군대를 몇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군을 현대화하여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현대적 기술을 결합하여야 혁명군대를 참말로 무적의 군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자면 또한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합니다.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전체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적들이 어디로 덤벼들든지 제때에 철저히 섬멸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헌신성에 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 영웅주의, 장병들 사이의 혁명적 동지애와 인민들과의 혈연적 연계, 자각적 군사규율 등은 오직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만이 가질 수 있는 정치사상적 우월성입니다. 혁명전쟁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는 비록 무장에서 뒤떨어졌다 하여도 최신무장을 갖춘 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사상적 우월성이야말로 혁명무력의 본질적 우월성이며 그 불패성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꾸리고 그의 정치사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며 혁명적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으로써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타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민족국방공업은 자위적 무장력의 물질적 담보입니다. 특히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무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악랄하게 책동하며 무기장사를 통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을 약탈하고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신생독립국가들이 자체의 민족국방공업을 창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물론 작은 나라들이 필요한 무기를 다 자체로 생산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무기를 다 남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민족국방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후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 대처하자면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들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며 유사시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전재에 대처할 군사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를 훌륭히 갖추고 전연과 후방을 다같이 튼튼히 꾸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국방에서 자위의 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자위적 무장력을 불패의 무력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며 적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물리치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것입니다.

(내일 계속)

3. 무장에는 무장으로 (2)

2권 제4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우리는 간도에서 품을 팔러 나온 인부로 가장하고 로동자들이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간도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로동자들은 추수투쟁에 대한 화제를 꺼냈다.

추수투쟁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대체로 비관적이였다. 왜놈들이 만주를 강점하기전에도 간도에서 숱한 폭동들이 일어났다가 실패했는데 하물며 그놈들이 만주를 침략하고 있는 때에 추수투쟁 같은 것이나 벌려가지고 무슨 승산이 있겠는가. 이 투쟁도 결국은 5.30폭동들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투쟁을 벌려도 소용이 없다. 보라. 일본군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게다가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국제기구에서도 그놈들의 편역을 드니 약소민족이 바라볼 데가 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로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 때 로동자들이 우리에게 한말을 듣고 나는 세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바 하나는 혁명가가 민심을 잘 알려면 항상 대중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장투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더 다그쳐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충격은 그 어떤 형태의 투쟁도 대중이 그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동원되기 전에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로동자들의 허무주의적이고 자포자기적인 견해를 들으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여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어야겠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였다. 그날 우리는 광명촌청년회 회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최성훈의 집에서 국내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열고 무장투쟁과 관련된 국내혁명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나는 회의참가자들에게 9.18사변후의 급변한 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 교훈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일 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과 무장투쟁을 개시하는 것은 우리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인 요구이며 질적인 비약이라고 강조하고나서 두 가지 큰 과업 즉 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과업과 함께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해야 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라는 격동적인 사변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무장대오의 조직을 돕기 위한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열변을 토하였다.

김중권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력량준비문제는 1931년 5월의 공수덕회의에서 이미 론의되고 확정되었다. 이런데 기초하여 광명촌회의는 무장투쟁이라는 새 사변을 앞두고 국내혁명조직들앞에 나서는 실천적 과제를 토의한 셈이었다. 이 회의는 국내 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보내는 무장투쟁의 예령이었고 사전신호였다. 회의과정에 표현된 무장투쟁에 대한 국내혁명가들의 적극적인 공명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나는 종성에서 하루를 묵고 인차 간도로 돌아와 채수항, 오빈과 헤어졌다. 우리는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 다시 모여 무장투쟁준비사업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의 구체적인 방도와 전략전술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그후의 나의 모든 일정은 명월구회의에 바쳐졌다.

회의준비라고 하면 보고서나 결정서와 같은 문건들을 먼저 념두에 둘 수 있는데 그때의 회의준비란 로선문제를 구상하고 전략전술을 규정하는 모색과정을 의미하였다. 사상을 성문화하는 것은 부차적인 공정이었다.

나는 특히 무장투쟁의 형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색에 많은 시간을 바치었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도 무장투쟁의 의의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는 공식규정은 없었다. 어느 시대에서 다 들어맞고 또 어떤 나라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무장투쟁의 형식을 모색하는데서고 교조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무장투쟁에 대한 론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과업을 토론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장영을 만나기 위해 동만특위로 찾아갔다. 만주땅에서 무장력을 창건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었다. 무장투쟁문제는 만주지방의 중국공산주의자들 속에서도 일정에 오르고 있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로농홍군은 9,18사변 후 군중을 조직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며 무장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자고 호소하였다. 같은 과녁을 향해 함께 총구를 겨누어야 할 조중공산주의자들 앞에는 그 어떤 철퇴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튼튼한 공동전선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제기되었다.

특위서기로 임명된 동장영도 일본군대의 토벌에 죽을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룡정시가지에 들어와 있으면서 나를 만나려고 하였다. 밀정들이 우글거리는 룡정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나는 그를 명월구로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만특위에서는 아직 간도실정에 어두운 동장영이 특위가 이동된 것도 모르고 그 행방을 수소문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밀정들에게 걸려들어 감방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뜻밖의 소식은 나를 실망케 하였다. 만주성당 서기 라등현과 성당군사위원회 서기 양림은 9.18사변 후 심양을 떠나 행처를 감추고 있었고 양정우는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동장영을 구원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의논하였다.

이런 때에 고보배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장영을 구원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섰다. 요술가처럼 손놀림이 빠른 그는 ≪쓰리≫를 잘했다. 마주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꽂혀있는 만년필도 눈깜빡할 사이면 뽑아내군 하였다. 고보배가 이런 장난을 잘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장소에서는 매번 물건이 잃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군 하였다. 이 사람이 룡정시내에 가서 쓰리를 한번하고 우정 경찰에 잡혀들어가 감방에 있는 동장영을 만났다. 고보배가 감방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어떻게나 구슬려놓았던지 특위서기는 그후 구류장에서 인차 풀려나왔다. 그렇게 되어 그가 명월구회의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1931년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편의상 ≪겨울명월구회의≫라고 부르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차광수, 리광, 채수항, 김일환, 량성룡, 오빈, 오중화, 오중성, 구봉운, 김철, 김중권, 리청산, 김일룡, 김정룡, 한일광, 김해산을 비롯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서 대중의 총애와 인망을 받고 있던 40여명의 청년투사들이 참가하였다. 그 때 나는 명월구에서 영채김치라는 것을 처음으로 먹어보았다. 내가 명월구 뒤골안에 도착한날 저녁 리청산이네가 땅콩을 넣은 강냉이죽과 영채김치를 들여왔는데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 영채김치는 함경북도의 길주, 명천사람들이 잘 담근다. 지금은 이 김치가 국가연회상에도 오르고 있다. 명월구회의 때 리광이 어디서인가 꿩 다섯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다. 회의를 하는 동안 대표들이 강낭죽에 조밥만 먹는 것이 가슴아파서 공청열성자들과 함께 꿩사냥을 한 것 같았다.

리광

그날 저녁 리청산은 좋은 꾸미감이 생겼다고 하면서 국수를 눌렀다. 명월구골 안에 흰쌀은 귀했지만 농마가루는 있었다. 그런데 국수라면 오금을 못쓰는 차광수가 덜렁거리면서 리광에게 ≪이것보라구, 왕청아즈바이, 꿩 다섯 마리를 가지고야 어느 코에 바르겠나.≫하고 집적거리었다. 그는 위탈이 심하여 끼니때면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면서도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늘 허기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대식가연하였다.

≪저 길림량반은 강낭죽 한사발도 못제끼는 주제에 큰소리만 탕탕 치는군. 이보라구 차덜렁이, 그 꿩 다섯 마리두 쌀짐우에 덧지고 오느라고 녹초가 됐네.≫

리광은 웃으면서 차광수의 말에 롱으로 대답하였다.

차광수는 꿩 다섯 마리면 고기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대표들을 두방에 가르고 한방에서는 꿩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하고 다른 한방에서는 닭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자고 열이 나서 떠들었다. 그러나 대표들은 모두 그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우리는 그날저녁 꿩고기와 닭고리를 한데 섞어서 꾸미를 만들게 하고 한방에 다같이 모여앉아 사이좋게 국수를 먹었다. 식성이 좋은 박훈은 세그릇이나 곱빼기를 하여 ≪국수대감≫이라는 별명을 벌었다.

➡

구봉운

회의를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회의에서 앞서 리청산의 집에서 예비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에서는 회의안건과 회의참가자, 회의순서문제 등이 토론되였다. 예비회의를 끝낸 다음 10일동안 집행된 본회의에서는 무장투쟁을 하되 어떤 형식의 무장투쟁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론의되였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락착되어야 무장조직의 형식과 근거지의 형태 문제 같은 이어의 문제점들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국가가 없으니 정규군에 의한 항쟁은 바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당장 전민이 동원되어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도 성숙되지 못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나의 마음은 자연히 유격전으로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은 유격전을 대중운동이 이미 실지로 폭동에 이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전쟁에서 대전투와 대전투 사이에 얼마간 중간기가 닥쳐오고 있을 때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규정하였다. 레닌이 유격전을 기본전투형태로 보지 않고 일시적이며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본 데 대하여 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흥미를 가지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한 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이였기 때문이였다. 나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투쟁형태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겠는가 적합치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여보았다. 그 과정에 손자병법도 보고 삼국지도 다시 보았다. 우리 나라 병서들가운데서는 동국병감이나 병학지남과 같은 것을 보았다.

유격전의 시원이 기원 400년대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유격전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제일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유격전은 1812년 로불전쟁시기의 로씨야농민무장부대의 활동이였다. 로불전쟁이 낳은 빨찌산 영웅 제니쓰 다위도브, 정규부대와 빨찌산의 련합작전을 능숙하게 지휘한 꾸뚜조브장군의 이야기는 유격전에로 끌리는 나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해주었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임진조국전쟁은 나에게 많은 것은 시사해주었다. 나는 임진조국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의병들의 투쟁을 유격전의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간주하였다. 곽재우, 신돌석, 김응서, 정문부, 서산대사 그리고 최익현, 류린석 등 의병출신 명장들이 발휘한 용감성과 다양한 전투방법은 나를 완전히 매혹시키었다. 유격전이라는 말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대전을 눈앞에 둔 나의 심혼을 온통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있어야만 유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야단이였다.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이 명시해놓은 이런 부대조건은 나로 하여금 무장투쟁형태를 선택하는데서 복잡한 탐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후방으로 될 국가도 없고 정규군도 없는 조선의 실정에서도 유격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이것이 우리들사이에서는 심각한 론쟁거리로 되였다. 우리 주변에서는 혁명을 추동하는 극적인 사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장개석과 장학량의 투항주의에 불만을 품은 구동북군의 애국적인 장병들 속에서 병변이 련이어 일어났다. 왕덕림도 당취오도 리두도 장학량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 반변하여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왔다. 마점산과 같은 장군도 병변을 일으킨 다음 무장을 들고 항일을 부르짖고 있었다. 이런 인물들을 주축으로 하여 만주각지에서 반일부대들이 조직되고 구국군운동이 시작되였다. 이런 사태는 무장투쟁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었다. 나는 무장투쟁형태가운데는 력사적으로 정규전과 유격전이 있었는데 정규전은 주도적인 것이였으며 유격전은 보조적인 것이였다는 것, 우리는 이 두가지 형태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나 개인의 견해의 견해로 볼 때에는 유격전이 우리 나라 실정에 더 적합할 것 같다는 것, 정규전이 불가능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유격전이 주도적인 투쟁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변화무쌍한 유격전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본무장 투쟁형식이다. 국가가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정규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군사기술적으로나 량적으로 렬등한 무력으로 강대한 일제침략군과 맞서싸워야 하는 것만큼 변화무쌍한 유격전을 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출로란 있을 수 없다.≫

장학량의 군벌군대나 독립군이나 일본군대밖에 보지 못한 청년들한테는 유격대에 대한 표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정규군과 유격대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고 강대한 일본침략군과 싸워이기자면 소부대와 대부대의 령활한 배합작전, 기습전, 매복전, 정치활동, 정치공작, 생산활동 등 군사, 정치, 경제 활동을 다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자유자재로 분산과 집중을 거듭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동무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 형식의 무장투쟁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겠는가. 땅크와 대포,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정예무기로 장비된 수백만대군을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령토에서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들이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내 자신도 사실 그런 가능성 여부를 여러번 저울질해보았다.

우리가 몇자루의 총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군사강국에 감히 대항해나선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의병도 독립군도 장학량의 30만대군도 모두 일본군대의 위혁 앞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들을 타승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국권이 있는가. 령토가 있는가. 재부가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국권도 령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라 땅에 곁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고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이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장시간의 론쟁을 거쳐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할 데 대한 문제에서 완전한 의견합치를 보았다.

유격전은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 타격을 줄 수 있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 수 있는 무장투쟁방법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거하면서 유격전의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다면 종국적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남들이 다 유격전을 정규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본 적인 투쟁형식으로 확정하고 방침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결단이였다.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일 데 대한 회의가 끝나자 우리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협의하였다. 먼저 혁명무력건설문제가 상정되였다. 우리는 그 때 처음에는 지방마다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고 그를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가면서 점차 그것을 대부대의 혁명무력으로 발전시키되 첫단계에서는 대대를 건설하였다가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인민혁명군으로까지 발전시키자고 토의하였다. 뒤이어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도 토론되였다.

유격대 조직에 관한 론의는 근거지에 대한 화제에 자리를 내주었다. 반일유격대가 조직되면 활동기지를 어디에다 두겠는가. 산에 두겠는가. 도시에 두겠는가. 농촌부락에 두겠는가 그리고 조선도 만주도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형편에서 유격전의 기지를 국내에 두겠는가. 만주에 두겠는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의견들을 진지하게 교환하였다. 어떤 군대에나 지탱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학생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우리 무장력이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싸우는 것만큼 전투가 끝난 다음 안전하게 휴식하면서 대렬도 정비하고 무기와 탄약도 보충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부상자도 치료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어야 유격전쟁을 장기간에 걸쳐 끈기있게 해나갈 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유격대를 조직하는 동시에 자체의 힘으로 근거지도 꾸려야 하였다,.

우리는 활발한 논의 끝에 군중토대가 좋고 물질적 보장조건도 괜찮으며 지형이 유리한 간도의 산간지대들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넓은 면적을 가진 만주대륙은 조선보다 적들의 통치밀도가 희박한 것만큼 간도에 먼저 기지를 정하고 때가 오면 국내에도 나가 백두산 대수림지대와 랑림산줄기를 타고 앉자고 하였다.

근거지는 적들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해방지구형태가 기본으로 되어야 하며 국내작전을 하는데서나 조국인민들의 지원을 받는데서 다같이 편리한 두만강연안의 산간지대들에 반드시 꾸려야 하였다. 두만강연안에는 물질적 보장조건이 좋고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나 우리가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이 산간마을들이 적지 않았다.

근거지로 꾸릴 구체적인 대상지들을 선정하기 시작하자 리광, 오빈, 김일환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앞을 다투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들의 제의에 따라 어랑촌,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하, 요영구, 대황구, 녕통라자와 같은 천험의 요새들에 근거지를 꾸리기로 하였다. 그 지역들에는 추수폭동 후 일제의 토벌을 피하여 들어온 혁명군중들이 집결되어 있었으며 이미 적위대까지 조직되어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을 지키고 있었다.

론의가 심화되고 구체화될수록 근거지를 장기간 운영하고 유지하는 문제 즉, 농업생산과 경제운영은 어떻게 하며 무기수리소와 병원은 어떻게 꾸리며 주민행정사업은 누가 맡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이 끝없이 제기되였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문제와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을 형성할 데 대한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이 모든 것은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벌이는데서 반드시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들이였다.

(내일 계속)

일화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참말 안타깝습니다

1980년 10월 5일에 있은 일입니다.

이무렵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준비사업을 주관하시는 장군님께서는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새날을 맞으신 장군님께서는 새벽 4시부터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 제6차대회 준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셨습니다.

이어 그분께서는 어느 한 중요건설대상에 나가시어 몇시간에 걸쳐 현지지도를 하시었으며 점심을 미루신채 이번에는 모란봉경기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에 가시어 오후 5시까지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집단체조를 지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제2백화점을 찾으시어 당대회를 뜻깊게 맞는 민중들에게 몸소 마련해주시는 ≪당대회제품≫공급정형을 알아보셨습니다.

벌써 하루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는 조선중앙통신사에 가시어 기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는 창광거리건설장 초고층건물의 30층노대에까지 오르셔 건설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장군님께서는 점심겸 저녁식사를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는 집무실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문건들을 자정이 넘도록 다 처리하시고 또다시 **김일성**광장에 나가시어 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돌경축 평양시 100만군중시위준비사업을 새벽 3시까지 지도하셨으며 건설중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대회가 열리게 될 2·8문화회관(오늘의 4·25문화회관)에 가셨으며 거기에서 나오셔서는 평양시내를 돌아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그분께서는 댁으로가 아니라 집무실에 가시어 문건을 보시고 새로 나온 영화까지 지도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불철주야 불면불휴의 정력적 영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탈린이 소독전쟁때 제국주의 봉쇄작전에 대처할 군사적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3년동안에 한 구분대를 7차례 찾아가 새벽까지 군사정보를 청취했다는 사실이 에피소드로 역사의 갈피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전쟁때도 아닌 평상시에 매일매일을 긴장한 집무로 보내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열은 일화가 아니라 하나의 영웅서사시입니다.

민중의 위업과 행복을 위해 나라의 대소사를 보살피시며 밤과 낮이 따로없는 정력적 활동을 벌이시는 장군님이시기에 그분께서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1974년 8월 2일이었습니다.

이날로 말하면 장군님께서 몸소 포치하시고 여러날에 걸쳐 지도해오신 전국당일꾼강습을 결속짓는 날이였습니다.

온 수도가 깊이 잠들었지만 그분의 집무실 책상위에는 아직도 비준하셔야 할 문건들과 자료들이 무드기 쌓여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많은 문건들과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나서 이날 강습회에서 하실 연설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나가셨습니다.

열정과 심혈을 기울이시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일하시는 사이에 어느덧 집무실의 창문너머로는 푸른 하늘이 훤히 밝아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한 일꾼이 그분께 시간을 알려드리면서 이젠 그만 쉬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는가고 하시며 ≪나는 지금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참말 안타깝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고스란히 밝히신 장군님께서는 이날 아침 완성된 연설문을 안으시고 곧바로 강습장소로 나가셨습니다.

정력, 그것은 열정의 분출입니다. 민중의 위업과 행복을 위해 밤과 낮, 휴식과 주무심도 없이 정력적으로 일하시고도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되는 것을 더없이 안타까워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진정 정열의 화신, 열의인중의 열의인이십니다.

송시

꽃 속의 4월

여기 봐도 꽃
저기 봐도 꽃
꽃 속의 4월인 듯
4월 속의 꽃인 듯

진흥로에 나서면
개나리가 손짓하고
여의도에 들어서면
벚꽃이 눈짓하고

남산공원의
철쭉만 곱다더냐
낙성대공원의
데이지만 멋이더냐

그보다 꽃다운 건
민중의 한마음
어버이를 기리는
겨레의 한마음

4월에 탄생하신
김일성주석님
영생기원 꽃바다에
세세연년 모시자고

꽃으로 시작된
4월은 꽃잔치날
꽃 속에 날이 가는
4월은 영원한 꽃명절

흠모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빛내어 나갈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는 자기의 방문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난 기간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다.

이 과정에 나는 **김일성**주석의 위인적 풍모와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위대한 공적에 깊이 매혹되었다.

나는 이번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김일성**주석을 뵈옵고 그이이시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였는가를 다시금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인류의 태양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김일성주석의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가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으며 세계사회주의 운동은 일시적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역사의 반동들은 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소멸≫되었으며 더는 소생할 수 없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며 조선이 당장 망한 것처럼 갖은 악선전을 퍼뜨리고 있었다.

게다가 몇 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까지 입은 조선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조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서방의 선전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셔버리고 자기 조국땅 위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빛내어 나갈 수 있다.

사상과 영도, 풍모에서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석께서 창시하신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 나가고 계신다.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펼쳐나가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인 것이다.

어디서 어떤 바람이 몰아쳐 와도, 세계정치가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오직 **김일성**주석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시고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에는 추호의 드팀도 없다. 조선이 오늘과 같은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강화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기본비결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있다.

조선은 전체 인민이 자기 영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대가정으로 철통같이 뭉쳐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웃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며 사회주의 보루를 지켜 정의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은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필연적이며 이것은 과학이다.

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조선인민이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 몰아내자

4.3제주항쟁 55돌에 부쳐

4.3제주항쟁

우리는 4월을 맞을 때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1948년 5.10단선을 반대하여 싸운 제주도민들의 4.3봉기를 감회깊이 되새기게 된다.

1948년 4월3일 제주도민들은 미제가 포악한 군정을 실시하면서 우리 조국을 영구분열할 목적밑에 감행한 망국적 5.10단선을 반대하여 분연히 투쟁에 궐기했다.

그날 새벽 2시를 기해 무장을 들고 반미구국투쟁의 봉화를 높이 치켜든 제주도민들은 ≪망국적 단독선거를 결사반대한다≫, ≪주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미제의 주구를 타도하라≫고 외치면서 경찰서, 관공서 등을 습격, 파괴, 소각했고 친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단호히 처단했다.

항쟁자들은 도처에서 집회를 열고 각종 파쇼악법들의 폐기를 선언했으며 인민위원회와 애국적 민주단체들을 복구했다.

이와 같은 투쟁에 당황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증강된 미군부대와 1천5백여명의 무장경찰, 3천여명의 국방경비대, 수천명의 무장테러단과 심지어 함선, 비행기까지 출동시켜 항쟁의 땅 제주도를 온통 불바다, 피바다로 만들었다.

그들은 하루동안에 수십개 부락을 불태워버렸으며 무고한 민중을 ≪산부대와의 연계자≫라고 하면서 5만 4백여명의 애국민중을 체포, 구금, 학살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의 그 어떤 폭압도 제주도민들의 투쟁을 멈춰세울 수 없었다.

투쟁은 더욱 고조되어 국군내의 애국적 장병들까지 항쟁의 편에 합세해 나섰으며 투쟁은 마침내 전국민적인 반미구국항전으로 넘어갔다.

참으로 4.3제주봉기는 미제의 한국강점과 국토분단의 영구화음모를 짓부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개와 자기희생정신을 내외에 널리 시위한 애국적 항쟁이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긴 세월이 흘렀으나 항쟁열사들의 염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분열의 원흉 미제침략군에 의해 국토는 두동강난채로 있고 우리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6.25전쟁으로부터 오늘까지 수십, 수백만의 무고한 양민들이 미제침략군에 목숨을 빼앗겼다.

양키들은 귀중한 우리의 옥토를 빼앗아 군사기지로, 훈련장으로 만들고도 성차지 않아 미군유지비의 명목으로 엄청난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있다.

서울의 젖줄기와도 같은 한강에 독극물을 쏟아넣고도 배상은커녕 사죄한마디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무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같은 불장난으로 이 땅에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고 있다.

제반 현실은 주한미군이야말로 이 땅에서 빚어지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편안하며 민족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야 한다.

이것은 4.3제주항쟁을 되새겨보며 다시금 가다듬는 우리의 의지이다.

김원국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1일

김정일영도자님을 칭송
전국연합소속 모단체 회원

전국연합소속의 모단체 회원인 이성민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국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압살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를 다 꾸미고 있다. 그러나 북은 강경에는 초강경에로 대응한다는 기성의 배포유한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미국에 창창 맞서고 있다. 이것은 친미사대굴종의식에 물젖어 있는 이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그는 계속해서 북이 초강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과 맞서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찍이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이 갈수록 오만하고 횡포해 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어 나라의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놓았기 때문이라면서 장군님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결의를 다졌습니다.

발전노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중지 촉구

발전산업민영화저지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집회가 서울 명동 등 도심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중연대는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발전노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전소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발전소민영화와 관련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4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쯤 집회를 마친뒤 종로와 청계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3개 채널을 이용해 시위를 벌였으며 명동성당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 발전노조원의 가족인 김모여인이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전쟁반대 6.15공동선언실현 기자회견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주최로 지난달 27일 미국대사관옆에서 전쟁반대 6.15공동선언실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민가협, 반미여성회, 통일광장을 비롯한 통일연대소속 단체성원 5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8일간 미국 대사관앞에서 진행된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열목사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은 한반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을 규탄하며 6.15공동선언실현의지를 다시한번 가다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전쟁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안고 6.15공동선언실현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한상열목사의 행동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상열목사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미국의 세계화철수를 촉구하는 단식을 마치고≫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식기간중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면서 공동선언이야말로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통일시대를 여는 새 역사의 분수령이고 통일운동의 대강령이며 이정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계 민중들이 저마다 자기 생활현장에서 공동선언실천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합친다면 통일이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미여성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회견문은 이번에 벌어진 대규모 전쟁연습은 한반도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한 대북침략 핵전쟁훈련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미국의 전쟁야욕을 꺾어놓고야 말 것이며 어떤 위협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대북기본노선≫규탄
조선사회민주당 , 천도교청우당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대변인과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을 규탄해 3월 30일과 31일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은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북의 존엄높은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남북사이의 협력교류를 차단하며 민족적 불화와 대결로 일관된 극악한 분열선언, 전쟁선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담화들은 미국의 반공화국 전쟁책동의 하수인이 돼서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기 위한 범죄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는 한나라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하고 이회창역도와 그 패거리들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일 것을 이남 민중에게 호소했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중지해야한다

봄철에 들어서면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대중의 투쟁이 더 거세게 벌어지는 것과 함께 더욱 노골화되는 공안당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그건 늘어나는 구속노동자수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김현철씨의 글을 임기수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중지해야 한다≫.

구속노동자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구속된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수가 241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불법파업혐의의 불구속입건자수까지 합하면 그 수는 600여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건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조지도자들과 핵심들이 징역형을 받았거나 아직도 구속중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는 그 수가 날을 따라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알려진 것처럼 가스, 발전, 철도 3대 공기업의 공동파업기간에만도 김재길 철도노조위원장과 가스노조 박상욱위원장, 김준석부위원장 등 많은 노조간부들과 수십명의 핵심들을 체포구속하거나 수배중에 있다. 이것은 공안당국의 노동운동탄압책동이 날이 감에 따라 더욱 횡포해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이를데 없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화로 인한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일터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실업자들과 8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들이 파탄되고 그 자녀들이 사회의 버림을 받으며 고아아닌 고아로 되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앞날을 비관하여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는게 이 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의 처지를 두고 한탄도 하고 실날같은 한가닥 희망을 안고 청원도 해보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뿐이었다.

드디어 노동자들은 그 어떤 환상이나 기대로써는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투쟁으로써만 삶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노동대중은 경향 각지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정리해고반대 등 생존권쟁취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이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우리 노동대중의 의지의 분출로써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항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 폭력,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고 수많은 노조간부들과 핵심들을 야수적으로 체포, 구속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이러한 탄압만행은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진출을 막아 눈앞에 박두한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사회행사를 무난히 치루자는 간악한 파쇼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떤 야수적 탄압으로써도 우리 노동대중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공안당국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면 할수록 1300만 노동형제들은 민주노조의 주위에 굳게 뭉쳐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릴 것이다.

공안당국은 노동대중의 이 투쟁의지를 똑바로 보고 민주화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노동운동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공안당국이 우리 노동대중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운동탄압에2 계속 매어달린다면 더 큰 항거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당국은 노동운동탄압에 광분하고 있는 공안당국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구속된 노조간부들과 노동운동핵심들을 즉시 석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공안당국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굳세어지는 강철같은 의지로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주체91, 4월 1일

계속되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

아시다시피 미국대통령 부시는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한 일반서신연설에서 이북을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느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느니 뭐니 하는 온갖 악담을 늘어놓아 우리 국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까지 항의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귓구멍이 막히지 않았다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심사숙고하여 다시는 그와 악담을 늘어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는 ≪악의 축≫망언을 계속 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과 조지아주 애틀란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공화당 선거자금 모금지원에 나서 이틀사이에 ≪악의 축≫발언을 네차례나 했고 그에 앞서 3월 중순에도 뉴저지주의 ***을 방문해서도 ≪나는 ≪악의 축≫에 관해 더는 명백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4일 플로리다주와 ***뉴욕에 가서도 ≪악의 망언≫을 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부시가 이같이 ≪악의 축≫망언을 계속 줴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세계 공정한 여론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고 이북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방대한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의 모든 지역을 겨냥하고 인류에게 항시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위험의 장본인이고 테러왕초이며 최대의 불량배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당치않는 테러의 감투를 씌워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강도적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시가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망언을 계속하는 것은 악의 화신, 호전광으로써의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써 힘으로 이북을 제압하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저들의 범죄적 기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부시행정부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 1월 이북을 비롯해 7개국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른바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를 국회에서 심의한데 이어 대규모 북침전쟁연습까지 감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시가 지금까지 무려 여덟차례에 걸쳐 이북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인 ≪악의 축≫망언을 줴친 것은 그들이 기어코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한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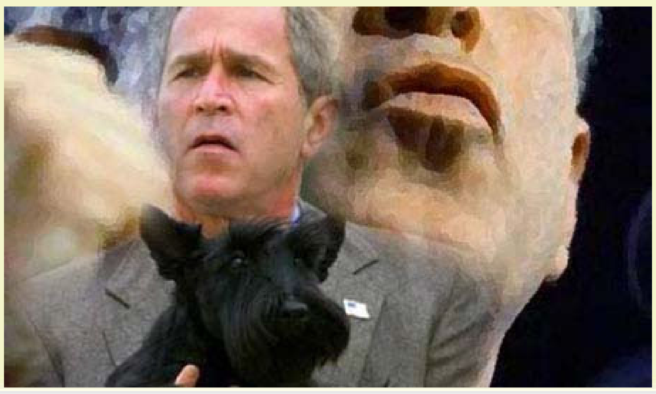
부시의 연속되는 ≪악의 축≫발언과 대북고립압살책동, 북침전쟁책동으로 인해 완화의 조짐을 보이던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되고 6.15공동선언이행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무겁게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야말로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겨레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고 하는 악의 화신이며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부시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중과 겨레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그 어느때보다 굳게 단결해 반미반전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임으로써 부시집단의 범죄적 기도를 꺾어버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화제의 초점
주체91, 4월 1일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1)

로동신문 론설 - 주체91, 4월 1일

21세기는 반제계급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 시대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짓밟고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것은 21세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류의 전도와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사생결단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물러 서면 노예가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로선을 틀어 쥐고 제국주의와 견결히 맞서 싸우는 위대한 영웅서사시를 창조하고 있다. 선군정치야말로 치렬한 반제투쟁이 벌어 지는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보편적인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앞으로도 제국주의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사생결단의 반제정신으로 일관된 정치방식

제국주의와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총대를 요구한다. 총칼에 의거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없으며 총대를 떠난 반제투쟁이란 있을수 없다. 무장한 제국주의는 무장으로 격멸해야 한다는것은 력사의 엄연한 진리이다.

력사에는 군사를 중시할것을 내세운 정치가 적지 않았다. 오늘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날로 횡포해 지는 제국주의의 책동에 대처하여 군사에 힘을 넣는것을 중요한 국책으로 삼고 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나라처럼 군사중시를 국사중의 최대의 국사로 내세우고 제국주의와 견결히 맞서 나가는 나라는 없다. 선군정치는 령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를 반제투쟁의 가장 위력한 보루로 전변시킨 기치이며 최악의 역경속에 있는 인민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는 기적을 창조하게 한 원천이였다. 반제자주위업에 끝까지 충실하자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구현하시는 선군정치를 따라야 한다는것이 시대적흐름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선군정치가 반제투쟁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는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구현하고 있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우리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신념이고 배짱입니다.≫

반제계급투쟁은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결사전이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생리로 하고 있는 제국주의는 반혁명의 길에서 스스로 물러 서는 일이 없다. 악을 쓰고 달려 드는 제국주의원쑤와 맞서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것이 사생결단의 각오이다.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면 무서울것이 없고 군대가 죽음을 각오하면 타승 못할 적이 없다. 이런 군대와 인민은 역경도 웃으며 맞받아 나가며 최후의 시각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현대적인 무기보다 결사의 정신력을 지닌 군대와 인민을 가장 무서워 한다.

오랜 반제투쟁사는 무장이 갖추어 졌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혁명의 총대란 사상정신적힘과 결합된 총대이다. 총대 더하기 결사의 의지, 이것이 반제투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의 제국주의는 ≪힘의 론리≫에 환장이 되고 전쟁열에 미친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핵타격도 불사≫할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극악한 전쟁미치광이, 핵불량배들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오직 강경한 립장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 하면 한걸음두걸음 물러 서게 되고 오히려 더 큰 희생을 당하게 된다. 결사의 의지를 지닌 군대와 인민만이 끝까지 존엄을 지키고 반제투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법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생결단의 의지에서 나온 정치방식이며 그 의지로 하여 위력 떨치는 백전백승의 정치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창조된 시기는 우리 혁명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 겹쌓인 시기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이 반만년력사에서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혹심한 경제적 난관을 겪는것을 기화로 사회주의조선을 영영 말살하기 위한 전례 없는 고립압살공세를 들이대였다.

대결이냐 굴종이냐 하는 판가리갈림길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단호히 선군의 길을 선택하시고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시였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수호전에로 이끄시였다. 선군정치의 개시,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사회주의조선의 비장한 의지를 과시한 사변이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견결한 반제적성격은 세상에 널리 알려 져 있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기본력량인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는 정치이며 제국주의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도 대처할수 있게 군사를 확고히 선행해 나가는 정치이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에도 견결한 반제정신이 맥박치고 있고 국방을 위주로 하는 우리의 독특한 국가정치체제에도 반제투쟁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이 구현되여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에 내놓으신 사회주의건설방침과 대외전략들도 견결한 반제계급투쟁관점에서 나온것이다. 사생결단, 바로 여기에 선군정치의 핵이 있고 본질적특성이 있다.

오늘 선군정치는 그 투철한 반제투쟁정신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혁명실천속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한목숨 바쳐 혁명을 보위하는 무적필승의 군대를 키워 낸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혁명군대는 신념과 의지로 제국주의군대와 대결한다. 혁명군대가 갖추어야 할 기질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희생을 두려워 하지 않는 용맹성이다.

군대를 현대적장비로 무장시키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군인들을 사생결단의 투사로 준비시키는 사업은 그에 대비도 할수 없이 어려운 일이다. 총대와 사상을 경시하는 정치, 황금만능의 정치는 백년이 가도 신념과 의지의 강군을 키울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높이에 이르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장령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전군이 총폭탄영웅, 자폭용사로 튼튼히 준비되여 있다.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위하여 자폭의 길을 서슴없이 택한 길영조영웅과 망망대해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품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의 위훈은 선군시대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가 높이 발휘하고 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이야말로 사생결단의 의지의 구현이다. 총폭탄이 될 결사의 각오가 매 병사, 매 지휘관들의 몸에 배이고 전군에 지배하는 군풍으로 되고 있는 우리 군대를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력사에는 평상시에 결사를 부르짖다가도 정작 제국주의가 총구를 내대면 뒤걸음치고 흰기를 드는 실례가 적지 않았다. 사생결단이란 말 그대로 목숨을 내대는것이지 허세를 부리는 구호도 아니고 그 누구를 놀래우기 위한 술책도 아니다. 적과의 대결에서 허장성세하는것은 비겁성과 나약성의 다른 표현이다.

오늘 우리 군대가 높이 든 결사의 구호는 결코 빈 말이 아니다. 우리 군대는 최고사령관이 일단 명령만 내리면 죽음판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 드는 결사의 대오이다. 한번 한다면 결판이 날 때까지 하고 한목숨 바친다면 기꺼이 바치는것이 우리 군대의 기질이다. 앞으로 있게 될 제국주의와의 판가리결전에서 우리 군대의 결사의 정신이 어떤 무서운 힘으로 폭발하겠는가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선군정치는 총대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불굴의 인민을 낳은 위대한 정치이다.

인민대중은 선군의 지반이고 군력강화의 무궁무진한 저수지이다.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자고 해도 인민이 견결해야 하고 군대가 무한대한 종심과 후방을 가진 불패의 무력으로 되자고 해도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있어야 한다.

인민들이 총대를 멀리하고 싫어 하는것은 결코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총대경시, 그자체가 제국주의와 사생결단하려는 의지가 없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총대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혁명성이 나올수 없고 원군기풍도 바랄수 없다. 총대중시야말로 혁명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우리 인민은 총대와 함께 운명을 개척해 온 인민이며 총대의 귀중함을 뼈와 살로 새긴 인민이다.

총대우에 자신의 행복도, 후대들의 미래도 있고 총대에서 혁명의 모든 귀중한 재부들이 나온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지닌 투철한 총대관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구현해 왔다. 자강도 인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사탕알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 왔다. 풀죽을 먹으면서도 혁명초소를 떠나지 않으며 죽어도 기계설비만은 베고 죽겠다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한때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무원칙한 ≪평화적공존≫을 부르짖으면서 피땀을 들인 땅크와 대포까지 녹이고 방위력을 약화시켰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는 평화적건설시기라고 하여 군사선행의 원칙을 줴버리는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다. 이것은 결국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이고 혁명에 대한 배반이다.

우리 인민의 군사에 대한 투철한 관점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변할수 없다. 총대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군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억척같이 다져 지게 될것이다.

선군정치는 천만군민이 끝까지 생사를 같이하는 위대한 단결을 낳은 힘 있는 정치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단결은 생명과 같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단결에서 적들을 전률케 하는 영웅주의도 나오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락관주의도 나오게 된다.

20세기 세계전쟁사를 분석해 보면 승리의 비결도 단결의 위력에 있고 패배의 요인도 단결의 와해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단결되지 못한 대오에서는 형세가 불리해 지면 상층부는 변절하고 하층은 도주하기 마련이다. 반제투쟁에서 배신과 변절이야말로 최대의 화근이다. 지도부와 대중이 단결하고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될 때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타승해 나갈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단결은 제국주의의 총구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결, 결사의 의지에 기초한 단결이다. 령도자를 따르는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쓰러져도 함께 쓰러지겠다는 불변의 의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목숨은 버릴지언정 동지적 의리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는 혁명적량심, 이것이 오늘의 반제투쟁시대가 요구하는 단결의 정신이다. 이런 단결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핵무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우리의 선군사상에는 천만 군민을 굳게 믿고 만난을 뚫고 나가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지애의 철학이 깃들어 있고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한마음한뜻이 되려는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지향이 담겨 져 있다. 선군시대에 령도자와 군대, 인민이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해나가는 위대한 화폭이 펼쳐 지고 있다. 령도자는 군인들을 나의 아들딸, 나의 병사라고 하면서 극진히 사랑하고 군대와 인민은 령도자를 어버이로, 태양으로 믿고 따르는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면서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선군천만리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고 있는것은 우리 일심단결의 힘찬 과시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단결이 약화되는 곳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친다. 단결된 인민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면서도 내부에 틈만 생기면 때를 만났다고 물밀듯이 달려 드는것이 제국주의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조차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땅에 포탄 한발 쏘지 못한것은 철옹성과 같이 다져 진 일심단결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단결의 힘을 보지 못하고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것은 맨발로 바위를 차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은 영원히 단결로 백승을 떨치는 불패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다.

반제투쟁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한 위대한 정치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창조된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갔다. 이 기간은 제국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로골화한 시기였으며 사회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격렬한 반제투쟁이 벌어 진 시기였다.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이 주시하는 반제투쟁의 전초선으로,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되여 왔다.

혁명투쟁의 시대적귀감은 혁명정세가 가장 첨예한 시기에, 사생결단의 계급투쟁이 벌어 지는 곳에서 창조되는 법이다.

선군정치는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가장 간악한 제국주의를 타승해 나가는 시대적귀감을 창조한 정치방식이며 제국주의포위속에서 사회주의리념을 꽃 피워 나가는 본보기를 보여 준 정치방식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자면 사회주의조선에서와 같이 선군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울려 나오고 있다.

선군의 길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반제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우리는 절대로 그 누가 도와 줄것을 바라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우리의 주체적힘에 의하여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

반제투쟁은 민족자주를 위한 위업이며 민족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할 력사적위업이다. 간악한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의거해야 할것은 오직 자기 인민의 힘이며 자체의 군력이다. 자기 힘으로 강대한 제국주의를 타승한다는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남을 쳐다보고 남의 지원을 바라면서 제국주의와 대결하는것은 모든것을 그르치는 길이다. 물론 반제투쟁에서는 국제적력량과의 련대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남에게 전적으로 기대를 걸고 반제투쟁을 벌리는 시대가 아니다. 좋을 때는 죽자살자 하다가도 일단 총포소리가 나면 싸우는 인민을 외면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지금은 제국주의에 먹히워도 어데 가서 하소할데가 없다. 혁명하는 인민들은 죽으나사나 제힘을 키우고 자기 힘으로 제국주의와 맞서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기개를 가져야 한다.

선군정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의 신념으로 일관된 정치이며 자기 혁명을 보위할수 있는 불패의 군력과 국가경제력을 다지게 하는 정치이다. 우리는 선군을 하였기에 제국주의가 련합하여 달려 드는 속에서도 단독으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위업을 굳건히 고수하였고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왔다. 선군사상과 정치가 없었더라면 남들처럼 대세에 따라 흔들렸을 것이며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 지고 있는것도 선군정치로 다져 진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하기때문이다. 우리의 혁명실천은 자체의 주체적력량이 강해야 남들이 동정도 하고 지지도 하며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자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근본정치리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 없는 신념이다. 자주가 생명처럼 귀중하기에 우리 인민은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피할 결사의 길에도 서슴없이 나서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설사 온 세계가 제국주의의 ≪세계화≫풍에 놀아 난다고 해도 자주의 기치를 버리지 않으며 ≪고난의 행군≫보다 더한 시련이 닥쳐 온다고 해도 남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함께 싸우는 익측이 없고 그 누가 우리를 도와 주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제힘으로 제국주의를 타승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선군의 길은 제국주의와 초강경으로 맞서싸우게 하는 견결한 투쟁의 길이다.

제국주의가 스스로 자기의 침략기도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 양보하면 할수록 더 기고만장해서 침략의 몽둥이를 휘두르는것이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적들과 결판을 내고야 말 의지로 강경하게 맞서 나가는 길만이 제국주의를 수세에 몰아 넣고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길이다.

횡포한 제국주의에 대하여 저자세를 취하는 리면에는 공포가 놓여 있다. 제국주의를 두려워 하면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고 무원칙하게 타협하고 양보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반제투쟁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제국주의에 겁을 먹고 뒤걸음치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큰 치욕을 당하는가를 혁명하는 인민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군정치를 구현하는 길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강경고압의 자세와 립장은 비할바없이 확고해 졌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만 건드려도 백배천배로 답새기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다.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몰아 붙이면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까지 벌린 미제호전광들의 망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의 강경한 립장의 발현으로 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약 미제가 무분별하게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놈들의 침략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 멸적의 기세에 넘쳐 있다. 조선이 없는 지구란 있을수 없으며 원쑤들이 감히 핵타격을 가해 온다면 지구를 깨버리겠다는것이 죽음을 각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의지이다.

우리의 강경한 립장은 결코 정세의 추이에 따르는 그 어떤 림시변통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날에도 강경고압이고 오늘도, 앞으로도 강경고압이다. 적들이 우리 인민을 정세가 유리할 때는 큰 소리를 치다가도 정세가 긴장해 지면 위축되는 그런 나약한 인민으로 본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 나라는 령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다.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강대국에 당당히 맞서 초고압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것은 력사에 류례 없는 일이다. 큰 나라라고 해서 강경한 반제적립장을 취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력사에는 령토도 크고 발전된 경제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 한방 쏘지 못하고 제국주의에 굴복한 실례도 있다. 오늘날의 대국이란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제국주의와 강경하게 맞서 나갈수 있는 나라이다. 우리는 견결한 자세로 제국주의와 맞서 민족의 존엄을 떨쳐 온데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선군의 길은 정치, 군사, 경제,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반제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수 있게 하는 길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적인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말그대로 전면전이다. 여기에서는 그 어느 분야에서도 파렬구가 생겨서는 안된다. 사상전선에 틈이 생기면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침투하게 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제국주의의 경제적침략을 막아 낼수 없게 된다. 군사에서도 승리하고 정치외교에서도 압도하며 경제기술분야에서도 자립해 나가게 하는 정치가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단호히 분쇄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정치이다.

선군정치가 오늘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것은 단순히 군력강화 그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만능의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국방을 위주로 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구조가 튼튼히 다져 지고 경제강국을 건설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사회주의문화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는 사상문화전선도 든든하고 경제적토대도 확고하며 군사적진지도 철벽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느 분야에 고립압살의 마수를 뻗쳐도 우리는 능히 대처할수 있으며 끝까지 맞서 싸울수 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가장 첨예한 분야는 정치외교분야이다.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외교전의 배경에는 정치군사적힘이 놓여 있다. 외교의 성패는 힘의 함수라고 말할수 있다. 적들을 궁지에 몰아 넣는 령활한 외교전략도 허공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주체적힘이 가져다주는 담력에서 나오는것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정치외교분야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였다. 선군으로 다져 진 불패의 국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와의 담판장에서도 할 소리를 다하고 우리 민족의 최고리익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었다. 우리의 외교는 남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인 외교이며 배짱과 담력으로 맞받아 나가는 강경한 외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도, 감언리설이나 유혹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도 적들의 위협에는 강인담대한 의지로 맞서고 원쑤들의 회유기만은 혁명적원칙성으로 과감히 짓부셔 버릴것이다.

선군정치가 실시되여 온 지난 7년간 우리는 몇십년에 해당한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 하나하나의 성과는 우리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제투쟁을 벌린 빛나는 결실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이 선군의 길에서 우리가 페부로 체득한 신념이다.

(내일 계속)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신 사상이론의 영재이시다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1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1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4월 15일은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90돐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경사스러운 대명절인 이 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날로 더해가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을 안고 한평생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그이의 위인적 풍모와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돌이켜 보게됩니다. 만민이 하늘처럼 우러르고 태양으로 숭배하는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에 즈음해서 강좌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14번에 나누어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부터는 4번에 걸쳐서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학습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사상이론의 영재, 영도의 거장, 인덕의 최고 화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신 사상이론의 영재이시라는데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은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의 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상이론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시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상과 이론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또 아무나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사상이론적 예지를 지닌 위대한 사상이론가만이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사상과 이론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사상이론에 대해서 말할때 그 사상과 이론을 내놓은 위인들의 사상이론적 예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신 사상이론의 영재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하고도 출중한 사상이론적 예지는 그이께서 지니신 특출한 탐구력과 창조적 사색력, 과학적인 통찰력과 명철한 분석력, 비상한 기억력과 한없이 넓은 식견과 지식, 뛰어난 저술력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특출한 탐구력과 창조적 사색력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수령님은 탐구력에서 또한 특출하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사색과 탐구를 멈추시는 때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탐구력과 사색력은 특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탐구력과 사색력의 비범성과 특출성은 미지의 세계로 파고드는 침투력과 참신한 사고력, 무한대의 정력과 결합되고 한순간의 중단도 없는 완강성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미지의 세계를 파고드는 비상한 능력을 지니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명백히 밝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무한대의 정력으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사색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탐구력과 사색력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바치시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밝혀 나가신 역사적 과정이 잘 보여줍니다. 20세기 초에 혁명실천은 계급해방이 먼저냐 민족해방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수많은 나라와 인민들의 운명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선행이론은 계급해방이 먼저이고 민족해방이 후차라고 정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우리 나라 같은 식민지인 경우 민족해방을 어떻게 하며 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독립된 후에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시대가 제기하는,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를 끊임없이 벌리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화성의숙시절에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그것의 교육내용으로서는 조선혁명의 참다운 길을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맑스주의이론에 대한 탐구와 사색을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켜 정렬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감옥에서 옥중투쟁을 벌리시는 간난고초 속에서도 오직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탐색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이 과정에 사대와 교조, 파쟁으로 얼룩진 초기 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어지러운 행로를 총화하시였고 그 교훈에 기초해서 마침내 조선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조선혁명의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은 혁명의 개척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여다른 주객관적 조건들에서 조선혁명은 그 전 과정이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간고하고도 복잡한 혁명이였습니다. 그런 것만큼 혁명의 자주적인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탐구와 사색은 조국의 광복을 이룩한 이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로부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전 과정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되였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80평생은 조선혁명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진지한 탐구와 사색으로 이어진 한생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과학적인 통찰력과 명철한 분석판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현상을 투시하는 통찰력과 분석판단력은 사상이론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의 하나입니다. 과학적인 통찰력과 명철한 분석판단력을 지녀야 복잡한 사회현상의 갈피들을 파헤치고 그 본질과 발전법칙을 밝혀낼 수 있으며 사회적 변혁을 위한 올바른 사상과 이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상이론가의 예지의 높이는 과학적인 통찰력과 분석판단력의 높이에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아무리 복잡한 현상속에 숨어있는 본질도 대번에 꿰뚫어 보시고 천만갈래로 엉킨 복잡한 사물현상의 갈래들도 명백하게 갈라내여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시는 비상한 통찰력과 분석판단력을 지니고 계시였습니다.

사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제국주의를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민족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나라들의 대외정책수립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로 나섰습니다. 특히,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우리 나라의 광복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미군이 남조선에 기어든 조건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적으로는 미제가 파쑈 도이칠란드와 일제를 패망시키는데서 논 역할을 과대평가하면서 미제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도 미제를 소위 ≪해방자≫로 그릇되게 생각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자기를 이른바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원조의 미끼를 내흔드는 미제의 교활한 기만책동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조장되여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피묻은 침략의 역사와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적 야망, 그리고 미국이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내놓은 제안들의 강도적 성격을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미제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미제야말로 침략과 약탈의 원흉이고 평화의 교살자이라는 것을 명백히 발가 놓으셨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과학적인 통찰력과 명철한 분석판단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짙은 안개 속에 잠겨있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먼 앞날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과학적인 사상이론이 제시되게 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상한 기억력과 한없이 넓은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비상한 기억력과 한없이 넓은 식견,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을 체현하신 위인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기억력의 비범성은 오늘 남조선에서도 많이 나돌고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담겨진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팔순에 다 이르시여 쓰기 시작하신 회고록에서 유년기에 겪으시였던 일들로부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제 일인듯 상세하게 회상하셨습니다. 회고록을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절감했겠지만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선 혁명의 새로운 길을 찾으시려고 보신 책들과 그 내용들, 국내외에서 벌어진 사변, 사건들과 그 관계자들, 어려운 지하투쟁과 무장투쟁 시기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의 상세한 정황들과 과정들, 혁명조직 성원들과 유격대원들의 이름과 용모, 습관, 그들과 나누신 이야기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간의 한계와 감퇴를 모르는 비상히 정확한 기억력을 지니셨을 뿐아니라 무한히 넓은 식견과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한히 넓은 식견과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셨기에 우리 일군들은 물론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도 그이의 접견을 받으면 그가 정치가이건 군사가이건 학자이건 모두가 다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넓은 식견에 탐복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뛰어난 저술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상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저작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의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작성하신 그날로부터 주체83(1994)년 7월에 이르는 기간에 집필하신 중요 저작만해도 무려 1,860여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평균 해마다 30권의 노작을 집필하신 것으로 됩니다. 이 노작들은 사상적 대가 명백하고 사상이론 전개에서 철의 논리성과 심오성, 명료성이 보장되였을 뿐아니라 인민적인 문풍과 혁명적인 필법으로 일관되여 있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은 사상이론적 예지와 업적에서 역사의 최정상에 서 계신 사상이론의 영재이셨으며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시대의 앞길을 밝힌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전백승의 영도력을 지니신 영도의 거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발전노조 아직 협상 타결 된 것 아니다

노정합의안, 조합원들의 의견 물어 결정

종묘 결의대회에 모인 발전 조합원들

4월2일 오후 1시로 돌입하기로 했던 민주노총의 제2 연대 총파업이 일단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과 정부사이에 발전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힘으로써 연대 총파업은 비상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4시경 종묘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사전 결의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발전노조의 협상이 타결 된 것이 아니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멘트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애초 오후 4시로 예정된 총파업 결의대회를 4시 20분경에 보고대회 및 결의대회 형식으로 시작하였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는 무대를 바라보고 오른편에 발전 조합원1000여명이 모인 상태였다.

허영구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이날 대회를 승리보고 및 결의 대회라고 밝혔다. 대회사에서 허 직무대행은 ≪지금 명동성당에서는 발전 지도부가 잠정 합의문 초안을 가지고 수용할 것인가 토론을 진행중≫이라며 ≪14만 민주노총 파업 대오는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정으로 이 자리에 있거나 대기한 상태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직무대행은 ≪오늘 총파업 돌입직전 11시 40분에 수정안이 나와 교섭 막바지로 가면서 1시 총파업을 일률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총파업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서 보다 강고한 투쟁을 벌여 내고 현장으로부터 자행되는 징계와 탄압에 맞서 조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상반기 투쟁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허 직무대행의 대회사가 끝나고 울산화력지부의 박기동 조직부장이 나와 ≪아직 파업투쟁이 철회 된 것이 아니≫라며 ≪다시 서울지역으로 산개 한 후 최종합의는 제2 거점에 모여서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모여 처음 파업을 결정했듯이 파업을 끝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조장들이 모여 다음 지침을 전달받았다. 결의 대회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연대사를 한후 행진 없이 끝났다.

발전 다시 산개 결정은 조합원들이

결의 대회 도중 발전 조합원들은 계속 빠져 나갔고 끝날 무렵에는 대부분의 발전 조합원들은 다시 산개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결의대회 도중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 뿌려진 정부제시(안)이라는 내용의 종이가 어지러이 남겨져 있었다.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준 정부 제시(안)은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과 정부사이에는 일단 합의가 된 사항이다. 또한 민주노총 교섭단은 제시(안)을 발전노조 지도부에게 넘겨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명동성당의 발전노조 지도부는 제시(안)에 대하여 이날 저녁까지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이미 결의 대회에서도 밝혔듯이 이호동 위원장이 직권조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일은 없을 듯하다.

이날 저녁 8시 경까지 알여진 내용은 발전노조는 일단 제시(안)에 대하여 각종 통로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 할 것으로 알려 졌다. 따라서 각종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협상이 타결되었고 내일 당장 조합원들이 복귀하는 등의 일은 없을 듯하다.

4월2일 밤 11시 전조합원 명동성당으로

발전노조는 4월2일 11시 명동성당에서 파업에 참가중인 전 조합원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11시 집회가 조합원 총회가 될지 보고 대회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인 조합원들이 협상안에 반대한다 해도 감수할 것≫이라 밝힌 상태이다.

참세상뉴스 2002/04/02

민노당, 이인제 고발 경고

이인제후보 민주노동당 강령 왜곡

민주노동당이 이인제후보가 색깔론과 관련 자신들의 강령을 왜곡했다며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고, 3자 정책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달 28일 전주 TV토론에서 이인제후보가 노무현후보에게 과거 국회 ≪재벌개혁≫ 발언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강령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급진적인 노선≫이라며 ≪색깔론≫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제후보는 28일 노무현후보가 88년 국회발언에서 ≪재벌총수와 그 일족의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하자≫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노후보를 ≪급진좌파≫로 공격하고, 이어 31일에는 ≪재벌해체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진적인 민주노동당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제후보의 이같은 공격에 노무현후보는 ≪과거 발언이며 지금은 아니다≫라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재벌주식의 노동자 분배≫는 미국,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에서 ≪종업원 주식소유제≫라는 방식으로 제도화돼 있어 급진좌경의 주장도 사회주의정책도 아닌 철저한 자본주의 정책≫이라며 색깔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두후보 모두 ≪친재벌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노당의 재벌개혁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재벌개혁은 황제경영으로 표현되는 총수 1인 소유지배구조를 노동자의 소유, 경영 참가를 통해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이후보의 노후보 비방으로 ≪재벌 해체와 민주적 참여기업 확산≫이라는 자신의 ≪진보적≫ 경제 강령이 ≪민주노동당이 마치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보수적인 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망발≫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같은 날 ≪이인제씨 민주노동당 강령 보시오≫라는 논평에서도 ≪민주노동당을 끌어 들어 노무현의 색깔이 우리 당보다 더 과격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한 이인제후보에게 ≪극우파적인 색깔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충고하고, 민노당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정당당하게 겨뤄볼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위원장은 ≪이인제씨가 노무현씨를 개혁으로 몰고 가는데 노씨는 보수 중 ≪합리적 보수≫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제반 공약을 검증하려면 민주노동당과 3자 토론하자≫고 말했다.

문선영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02

공명선거 우리가 이끈다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11일 출범

언론의 선거보도를 모니터하고 불공정 보도를 감시하기 위한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가 11일 출범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감연을 공식 출범시키고 국민경선 기획모니터 결과와 언론보도 감시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감연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 · 방송모니터위원회를 중심으로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에서의 언론보도 감시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감연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매주 기획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가 시작될 경우 일일선거보도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선감연은 경마식 보도, 지역감정 부추기기 보도 등 고질적인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비교 중심의 선거보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감연은 지난해 신문개혁국민행동에 참여했던 시민 ·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고 불공정보도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은민 언개련 기획 · 총무부장은 ≪지역감정 부추기기 등 눈에 띄는 불공정 보도는 사라지는 추세라 선감연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언론모니터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질 높고 전문성 있는 선감연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감연은 지난 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의 언론보도 감시를 위해 처음 출범했으며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언론보도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류정민기자
노동일보 2002/04/02

≪아리랑≫창작 완성단계

종합연습에서 보인 황홀경

4월말부터 두달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연습이 5월1일경기장에서 련일 진행되고 있는바 공연은 더더욱 세련되여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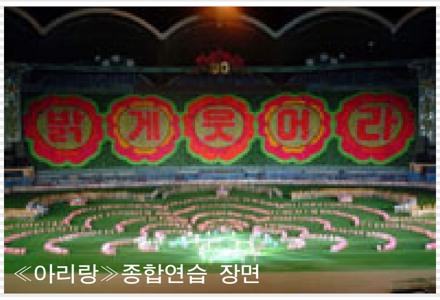
≪아리랑≫공연의 창작사업은 이미 마지막단계에 있다. ≪아리랑≫공연준비위원회 책임일군은 ≪4월 10일에는 다 완성될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3월 28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에 공개된 종합연습에서는 과반수의 장면들이 상연되였다.

≪이선남폭포≫중에서 선남, 선녀가 국부조명(스포트라이트)에 비쳐 지면서 하늘(무대 오른쪽)에서 내려 오는데 경기장 전체가 밝아 진 순간 그 모습이 없어 지는 장면, 또 ≪두만강을 넘어≫중에서 1천수백명무대출연자들이 흰 천을 가지고 눈보라를 형상하는가 하면 푸른 천을 가지고 두만강의 사나운 물결을 형상하는 장면은 참으로 놀랍고 볼만하다. 봉화가 지펴 지는 장면, 체조수들이 5층탑을 세우는 장면 등도 있다.

한 장면에서는 녀성출연자들이 손에 든 꽃가지가 밝게 빛장식되였으며 록색레이자빛이 곳곳을 비치는 등 3월 14일 ≪조선신보≫에 단독공개되였을 때보다 더욱 화려한 평양의 야경을 펼쳐 놓았다.

3월 29일에도 종합연습의 일부가 조선을 방문한 ≪아리랑≫관광고찰단들에 공개되였는바 한 장면에서는 배경대가 그리는 대동강앞에서 분수가 높이 올랐다. 까다로운 장치들도 완성되여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아리랑≫종합연습 장면

≪아리랑≫공연준비위원회에 의하면 4월 10일에는 하늘을 날아 다니는 처녀를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모두 완성된다고 한다.

≪아리랑≫공연은 수수한 적삼치마저고리, 가지각색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성들이 출연하는 장면이 아주 많고 부채춤, 쟁강춤 등을 피로, 어린이들도 민족옷을 입고 줄넘기재주를 부리는 등 민족적색채가 짙은 공연으로 준비되고 있다. 또한 공연은 수난의 시기로부터 강성부흥하는 오늘까지의 조선의 력사를 잘 보여 준다.

종합연습의 일부 장면은 련이어 평양에 찾아 오는 고찰단에 계속 공개되고 있다. 3월 29일에는 로이터, BBC, NHK를 비롯한 9개 나라 보도언론인들과 중국국제려행총사 대표들이 관람하였으며 30일에는 중국 단동시인민정부대표단 등이 관람하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고찰단이 조선을 방문한다고 한다.

강종석, 강이룩기자
조선신보 2002/04/02

남북 민간 실무접촉, 오는 10일 금강산서 개최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준비위)와 북측 민화협의 남북 민간 실무접촉이 오는 10일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북측 민화협이 2일 오전 남측 준비위측에 ≪오는 10일~ 12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준비위 관계자는 전했다.

준비위 관계자에 의하면 북측 민화협이 보내온 답신에는 ≪6.15공동선언 관철과 올해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의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였다고 전했다.

오늘 북측 민화협이 보내온 팩스는 지난 달 30일 남측 준비위 측이 ≪정부 방침이 임동원특사 방북 결과를 기초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무접촉을 10일~12일로 연기 제안한 것에 대한 답신이다.

이에 앞서 북측 민화협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이유≫로 지난 25일 준비위측에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한 바 있다.

한편, 1일로 예정돼 있던 남측 실무 접촉 대표단 명단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 준비위 관계자는 ≪대표단의 규모 등의 조절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02

2001년 8월, 평양에 모인 남북해외 대표단

경희대 지리학과 126명 4일 금강산 출항

≪황금발≫ 등 9개 소모임 학술답사 준비

경희대 지리학과 126명이 관광이 아닌 ≪학술답사≫를 위해 4일(목)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찾는다.

대학 지리학과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금강산답사는 지난 2월 7일(목) 가진 ≪전국대학 과반학생회 · 동아리 · 학회회장단 금강산 관광사업≫기자회견 후 경희대 지리학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오던 것이 재정문제로 인해 난관에 부딪히다 21일(목)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이 밝혀지면서 현실화됐다.

금강산을 찾는 경희대 지리학과 학생들

대학 지리학과 최초의 금강산 답사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될 금강산 답사는 선상에서 ≪이북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첫날 통일축구대회와 학회별 답사 준비 발표회를 가진 후 ≪통일시대의 지리학≫ 선상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다음날은 각 학회별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저녁에 답사발표회, 과 한마당, 통일기원제가 준비되며 마지막날은 삼일포 답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금강산 답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온 정다와(지리학과 학생회장 · 3)씨는 ≪지리학과의 특성에 맞게 금강산 답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경희대 지리학과를 처음으로 보다 많은 전국의 지리학과 학도들이 금강산 답사를 다녀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강산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던 것과 재정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정회장은 ≪학생들의 손으로 계획한 답사기행을 과 차원의 정식답사기행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교수님의 얘기에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금강산 답사의 숨은 주역, 동아리와 학회소모임

이번 지리학과 금강산 답사의 숨은 주역은 지리학과 동아리와 학회소모임. 학회로는 금강산의 관광 · 지리적 특성을 답사할 예정인 ≪인문지리학회≫, 석호(삼일포)의 형성 및 발달과정을 연구할 ≪공간, 금강산지역의 자연 · 인문적인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 구축을 할 ≪GIS≫, 금강산의 모습을 렌즈에 포착할 ≪GP≫가. 이북 노래 등에 율동을 창작하여 보급할 예정인 ≪한어울림≫, 이북영화에 대한 세미나 및 연구와 선상에서 이북 영화 상영을 할 ≪영때≫, 통일기원 축구대회를 진행할 ≪황금발≫, 답사자료집 편집을 담당한 과 소식지 편집 동아리 ≪또바기≫, 한민족의 노래를 공연하고 보급할 ≪노래그릇≫, 이북의 민요를 연구할 풍물패 ≪풍화≫ 등의 동아리가 바로 숨은 일꾼이다.

≪우리나라에서 금강산관련 자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리학을 공부하는 지리학도로서 직접 가서 눈으로 금강산의 지리를 보고 컴퓨터 상으로 금강산 지리정보시스템을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는 구선미(GIS학회장 · 2)씨는 이북지형을 등고선이 아닌 3차원영상으로 만들겠다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경희대 지리학과는 금강산답사를 다녀온 후 사진전 등을 통해 금강산의 실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총학생회 과 · 학부학생회발전특별위원회(과발특위) 김상훈씨는 경희대학교측에서 1년에 한차례씩 가지는 ≪세계문화교육기행≫을 금강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해 지리학과를 시작으로 경희대에서 금강산 관광 봇물이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4/02

주한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하)

누구를 위한 기지인가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 15개 자치체는 재작년 6월 피해보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전국 미군기지 주둔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사무국장 이재용 대구남구청장)를 결성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지이전요구운동이 미군철수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11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땅 7440만평(미군발표는 6770만평)중 기지 20개소 144만평과 훈련장 3개소 등 모두 4044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하며 새로 수도권의 땅 75만평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4천여 만평의 땅 반환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새 땅 주고 헌 땅을 받는 불평등 거래≫라고 혹평하고 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대부분 기름이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쓰지 못할 땅≫이기 때문이다.

≪환경 사각지대≫로 방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캠프 인디언은 시멘트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채 10년동안 방치되고 있다. 주둔했던 미군이 1992년에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한 후도 반환되지 않고 내부출입이 금지되어왔다. 미군이 40년간 사용해온 1만 2000평의 터와 시설은 심각한 ≪환경 사각지대≫인 것이다.

기지내의 20여채의 막사 안은 벽이 무너져 부서진 석고보드가 이곳 저곳에 흩어져있다. 천장은 단열재로 사용한 유해한 석면 덩어리가 노출되어 있고 곧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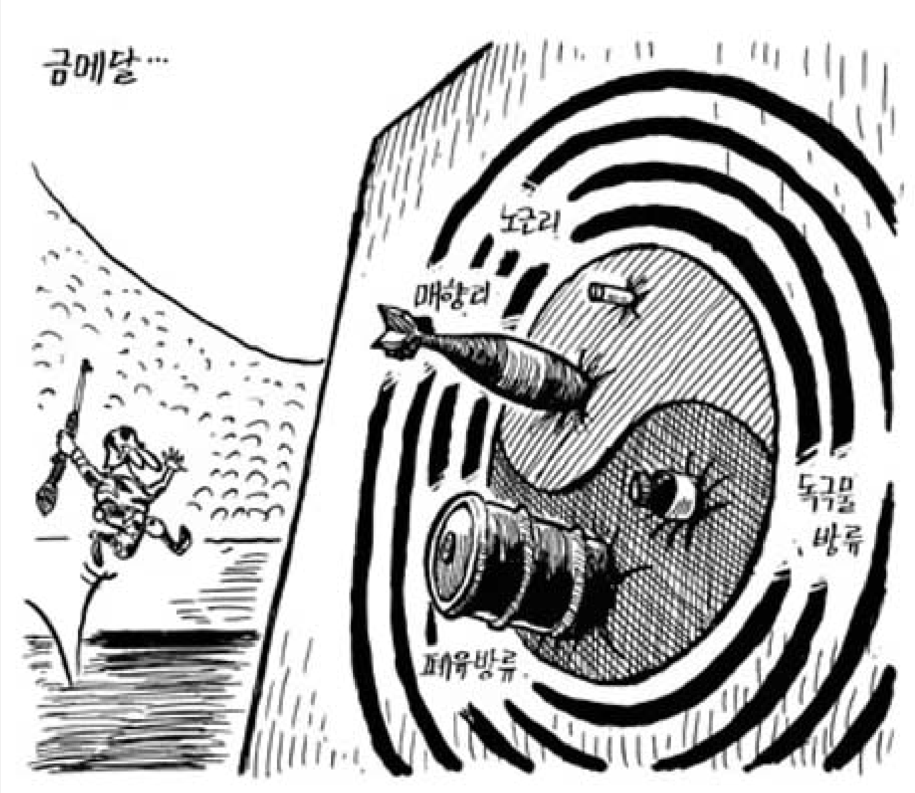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안창희 시무국장은 ≪석면이 널리 사용된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석면 함유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주장하고 ≪마구잡이로 건물을 뜯어낼 경우 상당량의 석면가루가 근처 주택가로 날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50가구 5백여명이 사는 이 동내 주민들의 가장큰 걱정은 기름으로 오염된 땅과 지하수이다. 주민 윤기선씨(60)는 ≪담너머로 주택가와 불과 2, 3미터 떨어진곳에 미군 주유소가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땅을 파면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 참여연대 임성수 사무국장은 ≪기지 안은 물론 주변 토양과 수질 오염도 등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토양과 수질 복원에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모르쇠≫라며 협력 안해

미국이 71년까지 40여만평을 유류저장기지로 사용한 인천시 문학산 기슭도 시급히 오염 실태조사를 해야할 상황이다. 전국의 미군기지에 수송하는 기름을 보관했던 지름 10미터, 높이 5미터를 넘는 대형탱크 22기가 있었던 이 기지는 미군이 떠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밭고랑이와 우물에 기름이 뜨고 있다.



지금도 일부 주민이 우물을 이용하고 있는 문학산 북측 학골마을은 이와같은 수질오염때문인지 주민이 120가구 300명밖에 없는데 20년동안 12명이 간암, 장암, 혈액암 등으로 사망했으며 한명이 식도암에 걸려있다.

2000년 10월 이후 인천시가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벤젠, 트루엔 등 유류성분이 기준치(키로그램당 80미리그램)의 실로 34배를 넘는 2742 · 9미리그램이 검출되었다.

인천녹색연합 유종반 사무국장은 ≪토질 복원에 어림잡아서 4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오혐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월에 경기도내 미군기지의 토양오염도자사를 한 관계자는 ≪반쪽 조사≫에 한숨을 쉬었다. 파주시 캠프 하우저와 의왕시 메디슨 기지에서 45개의 샘플을 채취하는 등 조사에 의욕을 보였으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한미간의 협력조사조차 미군측에 거부되어 무산됐기 때문이다. 미군이 ≪모른다≫고 말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소파 합의의사록 3조 2항에는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데 한국은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며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 한다≫고 되어있다. 미국측은 ≪존중≫만 하면 되고 한국측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관계자는 복원작업에 대해 소파개정에 따른 ≪오염원인자의 부담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끝)

민족시보 제970호 (2002/03/21)

임특사 일행 오늘 방북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간의 의견 교환과 정체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임특사는 5일까지 예정된 이번 방북 기간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북 고위급 인사들과 일련의 접촉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안보와 민족의 장래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특사 일행은 3일 오전 10시쯤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떠나 서해 직항로를 거쳐 오전 11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북측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은뒤 곧장 숙소인 평양 시내 백화원초대소로 향하게 된다.

임특사는 방북 첫날 오후 회담장인 인민문화궁전에서 카운트 파트인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과 회담을 갖고 지난해 9.11 미 테러참사 이후 급변한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강국면의 남북관계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조지 W. 부시 미행정부의 대외 및 대북정책을 북측에 설명하고 북미대화의 조속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재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이미 합의된 5대과제의 조기 이행을 북측에 강조하는 한편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재다짐하는 가운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이른바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라는 형태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강경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남북은 임특사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임특사 일행의 방북 첫날 일정을 확정했다.

임특사 일행은 3일 낮 평양에 도착,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여장을 푼 뒤 오찬을 마치고 오후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회담을 갖는데 이어 저녁에는 동석 만찬을 갖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에 누가 참석할지에 대해 북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특사 일행의 4일과 5일 일정은 평양에 도착한 뒤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은 전날 연락관 접촉에서 임특사가 방북시 대통령 전용기로 평양을 방문하며 전례에 따라 북측이 차량과 통신 등의 편의를 제공키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임특사는 출발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출국인사를 하고, 귀환한 후 보고를 가질 계획이다.

주용성기자
연합뉴스 2002/04/02

일국일당제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민중의 총의에 의하여 건설된 유일한 합법국가이다. 다음은 ≪현대조선역사≫에 수록된 내용이다.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적 중앙정부수립에 관한 방침은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는 남조선에서 강압적으로 실시된 단독선거의 무효를 선언한 다음 전조선적인 선거를 실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중앙정부를 세울 것을 결정하였다.

남북조선 전지역에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1948년 8월 25일 온 민족의 비등한 열의와 감격 속에서 진행되었다.

북반부지역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유권자의 99.97%가 참가하여 98.49%의 찬성투표로서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반동들의 방해책동을 고려하여 비밀리에 선거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인민대표들을 선출하고 선출된 인민대표들이 북반부지역에 모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남조선에서 선거가 벌어지자 미군정과 남조선반동분자들은 일대 탄압소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비상경계태세를 선포하고 미군기동부대를 38선전연(전방)으로부터 제주도 끝까지 배치했으며 반동경찰과 테러단들을 총동원하여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인민들이 서명투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높은 애국적 열의와 구국항쟁의 투지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유권자의 77.52%에 해당하는 673만 2,407명이 선거에 참가하여 1,080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피선된 대표자들은 북반부지역인 해주에 들어와서 8월 21-26일 사이에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여기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남조선인구 5만명에 1명 비례로 360명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을 선거하였다.

. . .

역사적인 남북총선거에 기초하여 1948년 9월 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남북조선에서 선거된 572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다.

김일성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었으며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은 첫째, 전체 조선인민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의 동원,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인 소미 양국군대의 동시철거의 실현 둘째,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의 청산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법적 처벌, 반동분자들의 매국배족행위와 파괴책동의 폭로분쇄 셋째, 일제 및 남조선정부의 법령들의 무효 선포,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개혁의 실시 넷째,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주적 민족경제의 건설 다섯째,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발전 여섯째,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의 공고발전과 남조선지역에서의 그 복구 일곱째,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 자유애호국가들과의 친선적 관계의 설정 여덟째, 조국의 보위와 민주개혁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강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주권으로서 항일혁명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이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은 1949년 6월 30일 남북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연합전원회의를 통해 조선노동당으로 합당하였다. 다음은 ≪현대조선역사≫의 관련 내용이다.

≪1948~1949년에 이르러 남북의 혁명역량을 결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요구되었다.

우선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을 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이승만정권의 반동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 적의 반동공세로부터 혁명역량을 보존하는 데 대한 **김일성**의 거듭되는 교시를 고의적으로 어긴 박헌영일파의 해독행위에 의하여 범죄적인 모험주의와 투항주의가 엉켜 작용한 결과 남조선의 노동당조직들과 혁명역량이 계속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남조선노동당은 전면적인 파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남조선노동당을 북조선노동당에 합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

광고

통일여명

4.15특간호 (16호)

백두장군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생애
불후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관한 **김정일**장군님의 말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영상 , 업적은 천세만세 길이 빛날것이다
주요문헌
내각의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에 대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백두청년
주체 91년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일국일당제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역량의 조직적 결합의 방도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동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영도자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지도이념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혁명전통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사회계급적 기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예술론을 깊이 연구하자!
이론실천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화제초점
주체사상연구보급조직 100여개 나라에 결성
집중조명
인류문예사상 최대걸작 ≪아리랑≫

리하여 **김일성**의 지도밑에 1949년 6월 30일 평양에서는 남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연합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남북조선노동당을 통일된 하나의 당으로 합당하는 데 대한 중요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남북조선 노동당을 합당하고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며 영도자인 **김일성**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유일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북을 이남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언제나 이남을 ≪남조선≫이라고 호칭하여 왔다. 다음은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의 이남에 대한 표현이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통일혁명당은 1969년 8월 25일 발표한 자신의 강령에서 대한민국에 이른바 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이란 가증스런 식민지지배를 분장하기 위한 간판이고 그 정권은 미제침략군과 원조달러에 의해 부지・조종되는 신식민주의의 도구이며 매국배족의 괴뢰정권이다.≫

한민전은 1985년 7월 27일 발표한 자신의 선언문에서 역시 한국에 이른바 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참으로 ≪한국≫의 지나온 40년 역사는 민족 자활이 아니라 망국의 가속화과정이였고 독립이 아니라 예속의 확대재생산과정이였으며 국민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재앙의 확산과정이였다.

. . .

≪한국≫민중의 권익의 옹위자인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저주로운 망국노와 처지와 결별하고 민족웅비와 새 기원을 마중하려는 겨레의 의지를 한 데 모아 하루빨리 참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감으로부터 광복 40주년을 맞으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에서 조선노동당의 전국적 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조선노동당의 기본사명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우리는 당의 창건을 선포할 때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고 우리 나라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목표로 내세웠던 투쟁강령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우리 당의 첫 강령이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아직도 전국적 범위에서는 이 강령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 앞에 나선 당면한 혁명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당의 당면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 .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행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의 최종적인 혁명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낡은 사회유물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류의 이상사회입니다.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

(끝)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67호)
주체 91(2002)년 4월 1일

조국통일3대헌장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4)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김정일령도자의 이남수재민들에 대한 은정어린 구호조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맞게 남북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동적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북남경제회담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 다음해 5월에는 오래동안 중단되였던 북남적십자회담이 12년만에 재개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재개된 북남대화와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회련석회의, 체육회담, 학생회담등 다기적인 회담을 제안하도록 현명하게 지도하시였다. 그분께서는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예술단과 고향방문단 및 체육단 교환을 실현하도록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예술단교환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하는 애국의 길에서는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일령도자의 이뜻깊은 말씀은 그대로 분단의 년륜을 새겨가는 3천리강산에 민족애의 숭고한 메아리로 울려퍼지였다.

그분께서는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이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정취를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지도하시였다. 이북예술인들이 서울에 나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정을 나누어 수천년을 두고 변함없이 살아있는 단일민족의 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다. 남북예술인들과 고향방문자들의 왕래는 온 겨레에게 민족화합과 통일의 열망을 더한층 북돋아주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놓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지향은 숭고한 것이였다.

이남민중은 통일의 전도를 불굴의 의지로 헤쳐나가시는 **김정일**령도자의 비상한 지도력과 전개력을 높이 칭송하였다.

≪**김정일**비서는 통일문제해결에 남다른 예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나가고 있다. 일찍부터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히고 비상한 지도력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으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나가고 있다.≫(≪조선일보≫ 1985년 8월 20일부)

이남에서 통일운동은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대중적성격을 띠고 발전하고 있었다. 변화된 정세에서 야당인사들은 북측과 만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청년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을 제기하였으며 녀성들과 종교인들도 북측 녀성, 종교인들과의 접촉을 주장하여 나섰다. 이런 뜨겁고 거센 통일열망을 배경으로 1989년 3월 70고령의 문익환목사의 방북과 6월 제13차 평양축전참가 전대협대표 림수경학생의 방북이 단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문익환목사의 애국충정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통일애국의 마음을 온 겨레앞에 빛내여주시며 그의 방북의 모든 일정을 뜨거운 민족애의 손길로 각별히 보살펴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또한 불같은 통일의지를 안고 평양을 찾아온 림수경학생의 애국장거를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그를 ≪통일의 꽃≫이라고 은정이 담긴 이름으로 부르시였다.

그것은 진정 그분께서 저명한 민주인사를 거쳐 표명하신 남녘의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믿음의 표시이고 한 녀학생을 통해 표시하신 이남의 백만 청년학도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높은 평가였다.

(끝)